

#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지방세 신설 추진

### 타 지자체와 연대 ... 원전세 인상 등 세율 현실화

### 전기료 인상·에너지산업 위축 우려 정부는 부정적

전남도가 에너지 관련 지방세 세율 현실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방세 신설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전남도는 26일 “원자력·화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 인상과 비과세 대상인 태양광 및 풍력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원전 1곳(영광 6

기)에서 170억원, 화력발전 여수 2곳, 광양 3곳 등 5곳에서 21억원의 원자력 및 화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은 전남도는 원자력의 경우 kw당 0.5원에서 2원, 화력은 kw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표준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전남도는 이미 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들과 연대해 지난 달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울산이 지역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표준세율 인상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표준세율이 인상될 경우 연간 원자력에서 651억원, 화력에서 75억원 등 모두 726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현재 가동중인 태양광시설 1323개소(700MW), 풍력시설 7개소(80MW) 등에 대해 재산세,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비과세 대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남도의 제안은 최근 안전행정부 주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장기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특히 신규 태양광시설은 2011년 111곳(29MW), 2012년 279곳(43MW), 2013년 1061곳(209MW), 2014년 6월 말 938곳(169MW)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풍부한 전남도로서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의 태양광시설은 전국의 35.9%, 풍력시설은 10.2% 가량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kW당 0.15원의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도세 3억원, 시군세 13억원 등 연간 1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월호 참사 배상·보상 TF회의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 참사 배상·보상 TF회의에서 여야 간사 의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전선 목표~순천 폐지는 영호남 상생 찬물 끼얹는 것”

### “주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 결정”

### 전남 지자체·국회의원 반발확산

목포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 중 목포~순천 구간을 없애려는 철도공사(코레일) 방침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코레일은 목포~순천 구간 이용객이 적어 무궁화호 열차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 등은 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의 영·호남 상생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6일 “부산 부전역~목포역까지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다음달 24일부터 부전역에서 순천역까지로 단축 운행하려는 계획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노선인 목포~순천 열차 운행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국회의원들도 전남도의 입장에 동조했다.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호남 상생을 상징하는 유일한 노선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과 화합을 깨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남해안철도가 건설된 후에 폐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와 지역시민단체가 참여한 ‘철도도민행동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남동부권대책위원회’는 이날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폐지하려 한다”며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이 그나마 누려왔던 값싸고 저렴한 서민 열차의 교통복지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목포시의회는 지난 25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1968년 개통한 목포~순천 구간은 지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 등 교류 역할에 중요한 통로”라며 “지역균형 개발과 영호남 화합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성군의회, 화순군청, 순천시청 등에서도 같은 입장의 성명을 내는 등 반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국가직 재난안전 실·국 설치 반대”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성명

### “실국장 지방공무원이 맡아야”

광주·전남 등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이 맡을 재난안전 실·국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관련 법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17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을 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시·도에 설치하고, 국가안전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 실·국장을 국가직 공

무원에게 맡기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에서 “재난 상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 기준을 완화, 현행보다 3~5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의회 ‘노후교량·육교보수’ 예산 20억 증액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회성 및 홍보성 예산 등을 대량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교량, 육교보수’ 예산은 2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중)는 26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김민중·이미옥·김동찬·반재신·조세철 의원 등 의원 전원 합의로 내년도 ‘노후 교량·육교보수’에 필요한 예산 2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종합건설본부는 2013년 안전진단결과 C등급을 받은 첨대교 등 교량 7개 소의 보수·보강을 위해 필요 예산을 57억원으로 산정했으나 내년 본예산에 5억원만 반영한 상태였다.

하지만, 산건위 위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억원을 증액한 총 25억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김동찬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의 나라’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반재신 의원은 “중용동 평화맨션의 기동 균열 발생 사고를 예로 들며 안전은 전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조세철 의원은 “관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예로 들며 행정에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옥 의원은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들어 ‘실마’라는 단어가 공공기관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윤장현 시장, 국제도시 창신대회 참석 오늘 방중

윤장현 광주시장이 자매도시인 중국 광저우시에서 열리는 ‘제2회 광저우 국제도시 창신대회 및 세계지방정부연합회의’(UCLG) 참석차 27일 출국해 29일 귀국한다.

윤 시장은 먼저 28일 국제창신대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광주시는 광저우 창신대회에 광주시 대표 브랜드인 ‘탄소은행제’를 혁신과제로 제출해 세계 57개 국가 177개 도시에서 제출한 259개 과제 가운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5개 도시를 선정하는 예비심사를 통과, 28일 최종 본선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 시장은 이어 57개 국가 177개 도시 시경제무역설명회 아시아 도시대표 주재발언을 한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광주광역시 산업현황과 기업지원 정책’이란 주제로 광주의 산업구조 현황과 특성을 설명하고 주력산업과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매출 및 수출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 시장은 이어 천재환 광저우시장, 미국화재경영학회 예즈영 회장 등 세계 화상 일행, 강소성 염성시 탕징 부시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들

# 천기누설 약초보감

MBN <천기누설> 제작팀이 1회부터 85회까지 소개한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 특별판!

## 천기누설 약초보감

### 천기누설 시리즈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 할 책!

천기누설 1~9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김수 | 전권 151,000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김수 | 정가 85,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70-7516-2069

